한강의 빛, 스톡홀름 밤을 비추다

시청 외벽에 한강 사진·한글 문장
여성 노벨수상자 65명 업적 담은
미디어 파사드 '리딩 라이트' 작품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건물 외벽에 한강작가를 비롯한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비상계엄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한국에 전하는 위로이자 '감동의 선물'이었다.

최근 발행한 비상계엄사태는 한강이 썼던 작품이 재현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들불처럼 일어났던 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장면들을 소환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이 정치적인 상과는 무관하지만, 한강의 소설은 정치적 격변과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은 '노벨 주간 조명'으로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있는 스웨덴은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해 등과 경계를 이룬다. 겨울은 밤이 길어 18시간 어둠이 내려앉는다. 밤이면 조명이 불을 밝히는데 노벨 주간의 조명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특별하다.

오는 15일까지 스톡홀름 시청 외벽을 물들인 미디어 파사드 '리딩 라이트'(Leading Lights)는 여성 수상자들을 위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65명의 여성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9분짜리 동영상에는 65명 여성 수상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한강의 사진도 나온다.

한강의 이미지와 함께 작품 '흰'에 담긴 문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가며 비춘다. "하얀 것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White, by nature is nothing at all, but within that nothingness, everything exists.)

또한 시청 맞은편 부두에 설치된 조명 '돔 아데톤'은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 18명 초상을 조명으로 이미지화했다. 올해까지 문학상 여성 수상자는 모두 18명에 이른다.

여성 수상자를 각별히 대하는 것은 역대 수상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1901년부터 수여된 노벨상은 총 1012명의 개인 또는 단체에 627회에 걸쳐 시상이 이루어졌다. 두 번 이상 수상한 이들이 있어 수상자만 집계하면 총 976명 개인과 28개 단체다. 이 가운데 여성(개인만 집계)은 총 66차례 수상했으며 두 차례 상을 받는 마리 퀴리까지 감안하면 여성 수상자는 65명이다. 전체 7%로 극히 적은 비율이다.

노벨문학상도 마찬가지로 역대 121명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18명(14.9%)에 불과하다.

한강 작가는 수상식에 앞서 9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이 생전 살던 집을 찾았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협회는 연합뉴스에 "한강 작가가 협회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유족에게 초대받아 전날(8일) 아파트를 방문했다"며 "한 작가가 가이드를 받으며 둘러봤고, 린드그렌의 증손자인 요한 팔름베리를 만났다"고 밝혔다.

한강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후로 스톡홀름을 더 즐기고 싶다"며 린드그렌의 아파트와 스웨덴 국립도서관을 둘러보고 싶은 곳으로 말했다.

린드그렌은 '말괄량이 삐삐' 시리즈를 비롯해 '엄지 소년 닐스', '미오, 나의 미오' 등을 쓴 세계적인 작가다. 스웨덴 아동체벌 금지법 제정에도 힘을 쏟는 등 아동인권에 기여했다.

스톡홀름 달라가탄 지역에 있는 린드그렌의 아파트는 작가가 1941년부터 200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주하며 '말괄량이 삐삐'를 비롯해 수많은 대표작을 썼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시낭송·작품 필사·영화 상영…수상 기쁨 함께 나눠

광주·전남 곳곳 다양한 축하 행사
광주에서 온 편지·북구 문학의 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일인 11일을 기념해 광주·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먼저 10일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광주시청 시민홀(1층)에서 '광주에서 온 편지'가 진행됐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강연 '한강의 작품세계'로 시작해 문학단체의 시낭송, 시극 '소년이 온다' 등을 볼 수 있었다.

오후 11시에는 솔뮤직컴퍼니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샌드아티스트 주홍의 샌드아트 영상, 극단 신명의 모노드라마가 상연됐다. 24시 노벨상 시상식 중계와 '광주의 밤' 영상 상영, 시민과 함께 하는 토크도 볼거리였다.

광주 북구도 수상과 맞물려 '북구 문학의 밤' 행사를 열었다. 오후 4시부터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 및 광장에서 작품필사, 체험부스, 포토존 등을 마련해 지역민과 기쁨을 나눴다.

자리에서는 한강 작가가 직접 작사·작곡한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12월 이야기'가 울려 퍼졌다. 이외 미디어파사드와 LED를 활용한 축하영상 상영, '소년이 온다' 주요 구절 낭독, 풍등 날리기 퍼포먼스가 이목을 사로잡았다.

같은 날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도 축하 행사가 열렸다. 오후 4시부터 전남도립도서관에서 펼쳐진 '도민 축하행사'는 시 낭송과 문학 특강, 수상 축하편지 낭독 및 지역 예술인의 축하 공연으로 채워졌다.

도립도서관은 책을 대여한 도민 124명에게(선착순)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했으며 전남도문인협회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한강 저서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남도립도서관 김명선 주무관은 "한강 작가께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강조했던 만큼 124회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124명에게 꽃을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며 "도서관을 찾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꽃을 받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줬다"고 했다.

장흥군은 8일 스웨덴 현지에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사절단은 스톡홀름 노벨박물관 앞에서 "대한민국 장흥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을 만나 면담한 뒤 한국문화원 관계자를 만났다.

아울러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가 활동 중인 한승원 문학학교(장흥군 안양면 율산마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이들은 10일 밤 11시 40분부터 함께 시상식을 보면서 축하 공연을 즐겼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기념해 10일 오후 광주 북구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린 '북구 문학의 밤' 행사에서 시민들이 수상을 축하하는 문구와 염원을 풍등에 실어 날려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영화의 기원을 찾다 '메이드 인 광주'

광주영화영상인연대·광주독립영화관, 12~14일 연례보고전

지역 영화의 내력은 어디서 시작됐으며 '광주 영화'란 무엇일까? 디지털장비가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영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이하 영화관)이 연례보고전 '메이드 인 광주: 지금 광주영화의 기원'을 오는 12~14일 영화관에서 연다.

총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 단편선, 광주영화의 기원작들을 둘러보는 한편 관객과의 대화, 라운드테이블, 광주영화인 네트워크 등으로 채워진다.

먼저 12일 오후 5시 20분에는 '광천동 김환경', 오후 7시 '소영의 노력'(관객과의 만남 예정)을 상영한다. 이어 13일 오후 7시부터 '2024 광주단편선'이라는 주제로 '핸드메이드 케이크', '개인의 상실에 관한', '자격' 등 지역에서 만든 단편영화 세 편을 스크린에 올린다.

14일 오후 1시에는 90년대 역사와 문화사 등을 톺아보는 영화를 만날 수 있다. '디깅 90년대'라는 테마로 '한 남자 기차길 옆에서 살해당하다', '3', '망월동행 25-2', '봉자바라' 등이 그것.

다큐 '광천동 김환경'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펼쳐지는 '광주영화의 기원1' 섹션은 '당신', '빨래', '사이' 등으로, 오후 4시 '광주영화의 기원2'는 '굿투씨유', '페도라의 상자' 등으로 채워진다.

'광주, 영화가 필요한 시간' 상영 후에는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한다. 김지연, 조대영, 허지은 등 영화인들과 광주영화학교 2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영상제작단 동그라미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외 광주영화학교 졸업식, 광주독립영화관 서포터즈(이글루) 해단식, 영화인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요코하마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단 라운드테이블

광주시·日요코하마시·中취안저우시
교류 11주년…문화예술의 시간

광주시, 일본 요코하마시, 중국 취안저우시는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원년 도시로 선정된 후 매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교류 11주년을 맞아 요코하마시에서 지난 6일~8일 세 도시가 문화 예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은 이번 행사에 광주 지역 소재 예술단(작곡그룹 촉)과 함께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단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남도의 전통 국악(판소리, 가야금병창, 민요 등)을 요코하마 시민들에게 알리는 무대를 선보였다.

요코하마시 대표적 관광지인 미나토미라이 조노하나 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라는 외형적 성과 외에도 광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를 매개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1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요코하마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행사에 광주 소재 예술단이 참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제공〉

한편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는 2012년 5월에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합의사항으로 진행됐다.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한·중·일 각 1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